

광주·전남 대학 탐방

4 조선대학교 디자인학부

“대한민국 디자인의 자부심”

‘대한민국 디자인의 자부심(Pride of Korean Design)’ 조선대학교 디자인 학부(학부장 김병욱)가 내건 모토이다. 최근 국제공모전에서 디자인학부 학생들이 거둔 성과를 보면 이 말이 실감난다. 전 세계의 디자이너와 기업들이 참여해 ‘디자인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독일 IF 공모전’ 및 ‘독일 Red Dot 공모전’에서 2008년 3작품 수상, 2009년 10명 수상 등의 쾌거를 이뤘다. 특히 2009년 Red Dot에서는 전세계의 경쟁을 뚫고 2위상(silver prize)을 받았으며 올해 세계 3대 광고제의 하나인 뉴욕 페스티벌에서도 한국 학생 최초로 3등상에 해당하는 ‘브론즈 월드 메달’을 받았다.

가구서 멀티미디어까지 9개 세부전공 우수 공모전 휩쓸며 국제적 위상 높여

1972년 응용미술학과 신설과 더불어 시작된 조선대 디자인학부는 현재 9개의 세부전공이 있는 규모와 실력 면에서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디자인 학문의 메카로 자리하고 있다. 21세기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창조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디자인 전 분야의 교육 시스템을 갖춘 ‘A to Z’ 교육환경 구축을 목표로 2001년까지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패키지디자인, 실내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가구디자인, 도자디자인,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과 전 전공분야를 지원하는 디자인 경영인 교육체계를 갖췄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전천후 융합형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디자인전공은 문화경쟁시대로 진입한 현대사회에서 가구, 도자, 섬유, 패션디자인의 문화상품 개발을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문화적 능력배양과 창의력증진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디자인학부는 지난 1997년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방대학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한 ‘산업디자인특성화사업’을 유치해



디자인학부 학생들이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하며 디자인 실습을 하고 있다.

시각디자인, 패키지디자인 및 멀티미디어디자인 분야를 포괄하는 시각정보 미디어전공은 첨단정보산업분야와 뉴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제작자 및 기획자를 양성하기 위해 실무중심의 전문제작능력, 커뮤니케이션디자인, 뉴미디어 환경을 위한 실험정신, 시대를 선도해 갈 수 있는 창조적 기획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제품디자인·실내디자인·디자인경영을 포괄하는 제품·실내 디자인전공은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문화에 대응해 인간 행동분석, 새로운 공간의 변화 양상, 첨단과학기술에 의해 발전되는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혁신적인 제품개발을 탐구하며, 인간의 모든 생활 공간을 계획하고 디자인하는 전 과정을 연구하고 있다.

가구디자인·도자디자인·섬유디자인·패션디자인을 포괄하는 문화산업디

지전공은 문화경쟁시대로 진입한 현대사회에서 가구, 도자, 섬유, 패션디자인의 문화상품 개발을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문화적 능력배양과 창의력증진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디자인학부는 지난 1997년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방대학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한 ‘산업디자인특성화사업’을 유치해

트라이트를 받았다. 영국, 핀란드 등을 포함한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유명대학과의 교류와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추진한 결과로 세계의 유수의 디자인공모전을 석권해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여 가고 있으며 매년 국내·외에 400건 이상의 공모전 수상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디자인학부는 최고의 디자인교육기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우수교원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디자인분야의 최고의 기업인 (주)금강기획, (주)대흥기획, (주)태평양 등의 국장급 임원을 교원으로 스카우트하고 우리나라 선도기업의 임직원, 주요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들을 대거 전임교원으로 확보했다.

이러한 최고 교육시스템의 구축은 바로 지역사회의 문화·디자인분야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로 나타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의 디자인분야 최고기구인 광주디자인협회 2009 대회장인 임채형 교수를 포함한 3명의 협회장을 배

최첨단 교육기자재 확보, 실무지향형 교육시설·환경 구축, 우수교원확보 등 명문대학으로서의 기반을 다졌다. 또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한 ‘지방대학특성화사업(NURI)’에 선정돼 3년간 60억원의 국비지원을 받았다. 이 같은 산학협력 프로젝트 강화 등을 바탕으로 최고의 디자인교육시스템을 구축해 취직난이 심각했던 2008년도에도 졸업자 취업률이 70%를 넘겨, 각종 언론으로부터 스포

출해 지역 디자인 발전을 선두에서 지휘하고 있으며, 광주디자인센터 유치,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유치 등에 앞장서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김병욱 디자인학부장은 “조선대학교 디자인학부는 세계 최고수준의 디자인 역량 강화와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의 메카로서 대한민국 디자인의 자부심이라는 책임감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고 상복 터졌네

입학사정관제 대비 대외활동 활발 과학동아리·그룹사운드 잇단 수상

광주고등학교가 입학사정관제를 겨냥한 교육시스템으로 각종 학습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24일 광주고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주관한 학생과학동아리 발표대회에서 독버섯으로 천연농약을 만드는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교내 그룹사운드인 ‘미리’도 인천시의 주관으로 열린 ‘YOUTH FESTIVAL’에서 전국 20개 팀과 겨뤄 최우수상(사진)을 차지했다. 또 전국 수학경시대회 1위, 과학탐구대회 금상, 제 21회 중·고교 과학경시대회 물리분야 은상 등 수학과 과학분야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김용호 교장은 “입학사정관제는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과 수상실적, 창의력, 잠재력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대입 방식”이라며 “학생들의 대외 활동을 독려해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동강대학 축제 지역민과 함께

24일, 25일 양일간 치러지는 동강대학의 축제가 과거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지역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틀을 바꾸고 있다. 동강대학 축제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의 하나인 ‘교육의 질 제고’프로그램을 이번 ‘대학축제’에 적용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동강인의 밤’으로 치러져 눈길을 끌고 있다. 축제 이틀째인 25일 오후 5시부터는 지역 산업체 인사와 지역민이 축제에 참여해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한 지역민을 초청해 교직원과 함께 족구와 피구 등 운동경기를 하며, 교수들이 학생들 앞에서 색소폰과 바이올린, 첼로 등을 연주하고, 스포츠댄스 등의 공연도 하게 된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황금희(교수학습개발원장)교수는 “이번 행사는 교직원과 지역사회주민이 하나가 되는 데 목적이 있고, 이를 통해 대학의 홍보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주월초 ‘사랑의 송편’

추석절 맞아 전통문화 체험 대축제 송편 빚어 아동센터·노인시설 전달

주월초등학교(교장 장대오)는 한가위를 앞둔 지난 23일 전교생이 참여한 가운데 송편 만들기와 떡 메치기, 민속놀이 등 전통문화 체험 대축제의 장을 열었다. (사진) 또 직접 만든 송편과 인절미를 인근 지역아동센터 3개소와 노인시설 3개소 등에 전달하는 등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의 기쁨도 함께 했다. 이 학교 박형택 교장은 “아이들이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소외된 이웃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매년 불우이웃과 함께하는 명절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추진 학교이기도 한 주월초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다양하고 특성 있는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조선대 ‘친환경 자동차 인재양성센터’ 개소

광주시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인 친환경자동차 부품소재 분야의 인력을 길러낼 조선대 친환경 자동차기반 부품소재 인재양성센터(센터장 차용훈)가 최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설립된 조선대 친환경 자동차기반 부품소재 인재양성센터는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통한 친환경 자동차 부품소재 분야의 선도인력 양성, 친환경 자동차 부품소재 분야 특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산학연관 협력 교육·연구체계 구축의 미래지향적인 인재양성 사업을 통해 광주시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고효율·저공해·친환경 하이브리드자동차 부품소재산업)분야 핵심역량을 가진 인력을 집중 육성한다. 사업단은 조선대 7개 학과(기계, 기계설계, 금속재료, 신소재, 응용화학소재, 광기술, 메카트로닉스공학과)로 구성돼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누리사업단 2곳 최우수 장관 표창

전남대 사업단 2곳이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 누리사업)에 대한 한국연구재단의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24일 전남대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5년간 실시했던 누리사업이 올해로 끝남에 따라 대학 사업단들의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발표했다. 그 결과 전남대는 광전자 부품산업 인력양성 사업과 전자정보기전 인력양성사업 등 2곳 모두 최우수등급을 받아 상위 30% 이내 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됐다. 광전자부품사업단(협력대학 : 호남대·광주대)은 지역 취업률이 초기 41.3%에서 56%까지 오르는 성과를 거뒀으며 지역산업체와의 산학 취업연계 맞춤형 교육과정도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자정보기전 인력양성사업(협력대학 : 목포대)은 저혁신, 저생산, 저기술 등 지방의 3저 구조를 탈피하고자 전략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지역혁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Movie advertisement for '영화안내 HAPPY TIME' featuring various cinema listings for Megabox, Columbus Cinema, Ham Cinema, Sinner's Paradise, and Zeil Cinema. Each listing includes movie titles, showtimes, and contact information.